

10월 지역 축제와 연계 ‘아르츠 마켓’ 주목

의정부시 문화·예술 물들일 ‘문화시장’ 개최
의정부문화재단, 문화 축제·콜라보 선보여

의정부문화재단은 의정부 전역을 문화와 예술로 물들일 특별한 문화시장 ‘아르츠 마켓’을 개최한다. 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플랫폼을 지향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의 주요 축제 및 기획사업과 연계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곳, 두 가지 매력으로 만나

‘예술의 일상을 더한 문화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아르츠 마켓은 19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 내 두 곳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펼쳐진다. 첫 번째는 잔돌문화공원에서

19일 열리는 ‘견생조각전×아르츠마켓’이다. 의정부문화재단 및 고산주민자치회가 공동 기획한 이 행사는 ‘비어 있던 풍경, 견생조각전(見生彫刻展)으로 채우다 - 고산동 작은 영웅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20여 개의 아르츠마켓 부스는 물론, 야외 조각전시와 다채로운 공연이 더해져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켓은 25일 캠프레드클라우드에서 열리는 ‘BMF(블랙뮤지컬페스티벌)×아르츠마켓’이다. 의정부시의 대표 힙합페스티벌인 BMF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 행사는 25개 내외의 아르츠마켓 부스와 국내 유명



▲의정부 문화·예술 한마당 행사 포스터. (사진=의정부문화재단)

가수들의 공연이 어우러져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아르츠 마켓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관람객을 만족시킬 계획이다. 20~25개



부스로 운영되며, 의정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과 시민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 발견’ 코너는 다양한

공방에서 제작된 수공예 작품 판매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한다. ‘맛있는 충전소’ 코너에서는 수제 음료, 토종꿀, 디저트 등 다채로운 먹거리가 준비되어 가을 야외 활동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아르츠 이벤트’ 코너는 행사 기간 중 특별한 미션을 수행한 관람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더한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아르츠 마켓은 의정부 지역 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 축제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시·도민들의 여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선오 기자 sso@gsdaily.co.kr

포천시,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성공 경기북부 방위산업 중심지로 도약 발판 마련

포천시는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경쟁에서 최종 선정되며 경기북부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국방벤처센터 설립은 경기도의 방위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9월 공모를 시작해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4개 시가 유치 신청을 했다. 이후 10월 22일 사업계획 발표회를 거쳐 23일 포천시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첨단 방위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민선 8기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2023년 드론작전사령부와의 합동

드론전력화 세미나를 시작으로 육군 교육사령부, 방공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군 산학연이 함께하는 세미나를 12회 개최하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해 왔다. 또한 드론쇼코리아 등 국내 주요 방산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기업들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인프라 부족이 공통된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인증·실증·연구 개발(R&D)·인재양성이 가능한 포천형 방위산업 육성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유무인복합체계 민군 콤플렉스 구축 전략수립 용역’과 ‘케이(K)-드론 소부장 클러스터 조성

전략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며, 미래전 양상과 국내 방산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민군 드론시험·평가·인증센터와 디지털트윈 기반 첨단 민군겸용 드론교육센터를 2026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양성계획’과 우주항공공정의 ‘케이(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정책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 방향과 맞물려, 향후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지난 2년간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26개 군관 산학연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도 최초로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챌린지대회와 방위사업청의 ‘찾아가는 기업간담회(다과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방산도시로서의



▲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

위상을 높여왔다. 최근에는 엘아이지(LIG)넥스원의 엠알오(MRO)센터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며 방산산업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년간 준비해 온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토대로 포천시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추진 역량에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포천시의회와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서 경기북부 전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포천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 중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천시는 방위산업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기북부 국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선오 기자

양주시, 2025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경기도·지작사 공동...경기북부 최대 규모 진행

양주시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참여하는 민·관·군 공동으로 가남리비행장 일원에서 ‘2025 경기·양주·지작사 드론봇 페스티벌’(사진)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드론봇 페스티벌은 육군의 첨단 드론봇·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비전을 국민에게 선보이고 민·관·군이 상생 협력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의 드론 축제다. 올해는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군이 함께해 규모가 확대됐다.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과 로봇의 실체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시연 ▲군(軍) 시범 및 축하비행 ▲모터사이클 퍼레이드 ▲첨단장비 전시 및 체험 ▲경연대회 ▲발전 세미나 등이 3일간 펼쳐진다. 또한 ▲수리온 헬기 및 장갑차 탑승 체험 ▲드론 스포츠 ▲VR



리듬 게임 ▲군장비 3D 입체퍼즐 조립 다양한 체험·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31일과 11월1일 민·군 상생음악회와 드론라이트쇼가 마련돼 가을밤의 낭만을 더하고, 광적면 상권 연계 양주사랑카드 20% 캐시백 이벤트가 준비돼 기대를 더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민·관·군이 함께해 드론 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 2029세계구석기엑스포 주민보고회 지역 주민과 ‘구석기엑스포’ 기본계획 공유...소통의 장 마련

연천군은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엑스포 기본계획 주민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천 구석기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경기북부 관광·문화산업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1부 ‘2029년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 결과 보고로 시작됐다. 2부에서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을 맡았던 최덕림 감독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주민 토론회 및 질의응답(Q&A) 시간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최덕림 감독,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오훈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해 연천 엑스포 개최의 의미와 주민 참여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연천군 ‘2029 세계 구석기엑스포 추진 현장 설명회’ 모습.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덕현 연천군수는 최근 열린 전곡선사박물관에서 진행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개최 추진 현장 설명회에서 연천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구석기 엑스포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최정석 기자